

삼성전자 와이드 모니터 해외서 호평



삼성전자 와이드 모니터가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권위있는 IT 전문誌에서 호평을 받았다.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에 의하면 와이드 모니터는 2010년에 1억8백만대의 시장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와이드 모니터가 미국, 영국 등의 선진시장에서부터 중국, 크로아티아 등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에서 호평을 받으며 세계 와이드 모니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선보인 윈도우비스타 인증 와이드 모니터 '206BW'는 월 32만부 이상 발행되는 미국 IT 전문지 'Maximum PC 3월호'에서 잡지사 추천 제품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영국의 권위있는 IT 전문지 'Computer Shopper' 3월호에서도 22인치 모델(226BW)이 뛰어난 화질과 성능으로 호평을 받았다.

한편 삼성전자 와이드 모니터 '226BW'는 지난 1월에 열린 제3회 중국 게임 산업 연례회의에서 '2006년 가장 환영받는 게임 주변기기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삼성전자 와이드 모니터는 크로아티아 지역의 대표 IT 매거진인 VIDI 1월호에서도 19인치(931BW) 제품과 20인치(205BW) 제품이 각각 '2007년 그랑프리'와 '베스트바이'를 차지했다.

삼성전자 와이드 모니터가 세계 각국에서 호평을 받은 것은 화질기술 개발을 통한 모니터 제품력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하윤호 전무는 "삼성전자는 와이드 모니터 시대에 맞추어 와이드 모니터 전 라인업을 윈도우비스타 레디로 전환하고, 새로운 기능을 지속 추가하여 증가하는 와이드 모니터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LG전자, 세계 CDMA 시장 2년 연속 1위 달성

LG전자가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전세계 CDMA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직 애널리틱스(Strategy Analytics, 이하 SA)'가

최근 발표한 2006년 전세계 휴대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전세계에 3,850만대(시장 점유율 22.3%)의 CDMA휴대폰을 판매해 1위에 올랐다.



모토로라(3,120만대, 18.1%), 삼성전자(2,560만대, 14.9%), 노키아(1,800만대, 10.4%)가 LG전자의 뒤를 이었다.

LG전자는 지난 2003년 2,130만대(21.6%), 2005년에도 3,040만대(20.9%)를 공급하며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LG전자의 전세계 CDMA 시장 1위 2연패는 미국 시장에서 초콜릿폰, 엔비(EnV) 등 고가의 멀티미디어폰이 판매 돌풍을 일으키며, 시장 점유율을 추가로 확대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미국 시장 조사기관인 NPD그룹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시장 최고 인기 모델 10개 모델 가운데 4개가 LG 휴대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 목	일자
1	삼성전자, 냉장고의 3대 혁신 '지펠 컬리넨' 출시	2007/03/08
2	덴마크 아트&디자인 미술관 에 삼성 LCD TV·휴대폰 영구 전시	2007/03/07
3	삼성전자, 美 메시징 휴대폰 시장 공략 강화	2007/03/07
4	삼성전자, 3G CDMA 시스템 대규모 수출	2007/03/06
5	삼성전자, 납세자의 날 '1조3천억원탑' 수상	2007/03/05
6	삼성전자, 초절전형 PDP용 256채널 디스플레이 구동칩 양산	2007/03/05
7	삼성전자 와이드 모니터 해외서 호평	2007/03/04
8	삼성전자, 세계 최초 60나노급 1기가 D램 양산	2007/03/01
9	삼성전자, 美서 B2B 사업 본격 강화	2007/02/26
10	삼성전자, 퓨전 메모리 원랜드 생산 1억 개 돌파	2007/02/22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 목	일자
1	LG 에어컨, 터키 시장 1위	2007/03/08
2	해외 언론인 70여명 LG전자 방문	2007/03/08
3	LG전자, 세계 CDMA 시장 2년 연속 1위 달성	2007/03/07
4	러시아를 매료시킨 금장 TV	2007/03/05
5	LG전자 유럽 에어컨 시장 본격 공략	2007/02/28
6	LG전자, 신개념 빌트인 솔루션 출시	007/02/28
7	LG전자-연세대 40억 규모 산학협력	2007/02/23
8	LG전자, "프라다" 제휴 2탄 출시	2007/02/21
9	LG전자, 인니서 One Stop 수해 복구	2007/02/16
10	LG전자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2007/02/16

이는 노키아(3개), 모토로라(2개) 등을 제치고 전세계 CDMA 휴대폰 시장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미에서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굳히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LG전자는 전세계 CDMA 진영을 대표하는 'CDMA 개발그룹(CDMA Development Group)'이 최고의 업적을 이룩한 회사에 수여하는 '3G CDMA 산업 발전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대우일렉, IPTV 월드포럼 2007 참가



대우일렉은 지난 3월 5일부터 7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의 IP 미디어 행사인 'IPTV 월드 포럼 2007' 행사에 참가, 자사 IPTV 관련 제품군을 대거 선보였다고 밝혔다.

IPTV 월드 포럼 2007에서는 IPTV와 유선식 IP 방송시스템인 DVB-T, 각종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를 IP망에 효율적으로 송출할 수 있는 'DDS 시스템' 등 차세대 방송통신 장비들이 출품되며, 마이크로소프트·지멘스·IBM 등 전세계 200여개 업체가 참가한다. 특히 대우일렉은 단독 전시관을 마련해 DVB-T 및 IP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HD급 멀티캐스트 셋톱박스, 실시간방송·주문형비디오(VOD)·음악·데이터 송출용 DDS 시스템 등을 전시한다. 대우일렉 제품들은 첨단 압축기술인 'H.264/MPEG-2' 멀티캐스트와 고화질 'HDMI' 포트를 지원하며 윈도 CE 기반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구현해 현지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덱트론, 전지 공급 계약

덱트론은 일본의 유명 완구회사인 교쇼의 스즈키 마사유키 대표이사와 연간 350만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했다고 1월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제품은 완구에 사용되는 나노 2차 전지로, 일본 교쇼사의 인공지능 로봇인 마노이에 사용되는 1250mAh의 리튬폴리머 전지와 모형 경주자동차에 사용되는 1500~3000mAh의 리튬이온 전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덱트론은 지난해 미국의 아르곤연구소로부터 나노 신물질(L333)을 공급받아 배터리를 개발·생산 중이며, 이번 배터리 수출을 통해 자사 2차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시장에서 인정받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의 마이클박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은 덱트론의 새로운 사업인 에너지 분야에서의 첫 번째 결과물"이라며 "현재 제품개발과 함께 오창공장에 대규모 양산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963년 설립된 교쇼사는 원격조종이 가능한 완구류에서 독보적인 회사로 최근 인공지능 로봇 개발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완구전문 업체다.

LS전선, 신규사업 발굴로 부품 성장 전략을 수립

LS전선은 오는 2012년 세계적인 부품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 아래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성과가 미약한 일부 부품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의 부품 성장 전략을 수립했다고 1월 23일 밝혔다.

특히 3년간 정체 상태였던 부품사업부문 매출도 올해 20% 이상 확대하고 글로벌 부품 기업으로의 기반을 확보하기로 했다.

LS전선은 이를 위해 기존 상무급이 맡았던 부품사업부문을 부사장으로 격상시키고 기계사업본부장이었던 심재설 부사장을 임명했다. 심재설 부사장은 기계사업본부장 시절 만능적자이던 기계사업을 흑자사업을 전환

시켰으며 최근 2년간 군포공장의 전주이전,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 중장기 전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다.

심 부사장은 최우선 과제로 부품, 소재사업의 핵심역량인 기술력과 마케팅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상품기획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신제품의 고객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LS전선은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FCCL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올해 슈퍼커패시터, 휴대폰용 연결부품인 MCX(Micro_coaxial Cable & Harness)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매출을 확대한다. FCCL은 지난해부터 양산을 시작했으며 슈퍼커패시터는 올 상반기에 양산체제를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FCCL과 슈퍼커패시터 등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돼야 하는 사업이다. 또 휴대폰용 안테나 사업에도 신규로 진출기로 했다.

엠텍비전, 지난 해 매출 1185억, 영업이익 86억 달성

엠텍비전은 지난 4분기에 314억원의 매출과 10억원의 영업이익, 19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매출액이 2005년에 비해 34% 가량 떨어진 1185억원, 영업이익은 75% 하락한 86억원, 당기순이익은 89% 떨어진 35억원으로 집계됐다.

엠텍비전은 4분기에 원가 및 판매비 부분에 재고자산평가손과 매출채권대손충당금 18억원을 반영해 영업이익이 실제 30억원이던 것이 10억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재고자산평가손과 매출채권대손충당금은 개발중단으로 인한 개발비 감액손실 등 29억원에 달하는 회성 비용을 들었다. 또한, 지난 해에는 세무조사결과 마스크 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

추납액 10억6000만원을 납부한 것도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개발중단으로 인한 개발비 감액손실 등 일회성 비용이 29억원에 달했고 마스크 비용을 연구개발 비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 추납액 10억 6000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이라고 엠텍비전은 설명했다.

김동인 상무는 “여러가지 요인들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떨어진 것이고 영업 마진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코닝 이석재 신임 사장 취임식

삼성코닝 대표로 선임된 이석재 사장이 지난 1월 22일 구미사업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차별화와 효율 경영으로 삼성코닝을 일류



기업 반열에 다시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삼성코닝은 한 때 브라운관으로 세계 일류기업으로 존경받던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품

과 기술의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코닝이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는 차별화가 중요하지만 당장 고객이 감동받을 제품과 기술의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며 면광원, FDP 필름 등 차세대 신수종 사업을 집중 육성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2003년 삼성코닝정밀유리 대표로 선임된 이 사장은 불량률을 낮춘 초대형 유리 기판 등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 개발, 매출을 매년 50% 이상씩 끌어올리며 삼성코닝정밀유리를 세계 1위 LCD 유리업체로 발돋움시킨 바 있다.

이 사장은 또 “자동차에 비유하면 차별화는

4개 바퀴에 해당된다”며 “이를 잘 움직이려면 엔진의 효율이 좋아야 한다”며 효율 경영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최근 침체 된 회사 분위기를 반영하듯 “일류기업은 결국 직원들의 자신감이 없으며 불가능하다”며 할 수 있다는 직원들의 금지와 자부심도 당부했다.

노틸러스호성, 키스뱅크 인수

노틸러스호성은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지급기(CD) 시장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인 키스뱅크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노틸러스호성은 1월 22일 20억원을 들여 키스뱅크 지분 53.11%를 취득,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노틸러스호성은 마이캐시존이라는 브랜드로 지하철역이나 편의점 등에서 CD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7%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CICO365’ 브랜드의 서비스를 제공해온 키스뱅크 인수로 인해 1.5%가량의 점유율을 추가 확보했다.

회사측은 “키스뱅크가 매물로 나오는데 대해 손익을 검토한 끝에 인수를 결정했다”며 “키스뱅크를 통합시키지 않고 두 개의 브랜드로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성넥스티어, 한국기독교인터넷방송에 LCD TV 공급

디지털TV 업체 우성넥스티어(대표 안철수)는 한국기독교인터넷TV방송국에 LCD TV 2만대 공급키로 했다고 1월 29일 밝혔다.

우성넥스티어는 이번 계약에 따라 42인치 풀HD LCD TV 2만대를 올 한해 한국기독교인터넷TV방송국에 공급하며, 공급규모는 263억원대에 달한다.

한국기독교인터넷TV방송국은 IP TV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급받을 TV를 통해 가입자에게 방송 콘텐츠와 TV 기반의 홈쇼핑, 교육 및 정보 방송, 광고 마케팅

및 화상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성넥스티어는 이번에 공급하는 제품 외에 자체 개발중인 IP TV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부가가치형 TV를 개발하고 있다.

알티전자 세계 최고 수준 휘도 백색 LED 개발

알티전자가 양산용 사이드 뷰 발광다이오드(LED)중 세계 최고 수준의 밝기인 2.0칸델라급 0.6mm 사이드 뷰 LED 개발을 완료해 2월말부터 양산에 착수한다.

1월 8일 회사측은 독자적인 패키지 설계로 개발된 이 제품이 국내외 경쟁사보다 25% 이상 높은 광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이드 뷰 LED의 주요 수요처인 휴대폰 시장 외에 PMP, 내비게이션 등으로도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그동안 사이드뷰 LED는 LED 시장 중 가장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휘도로 인해 휴대폰과 같은 소형 LCD에만 사용이 국한돼 온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2.0칸델라 LED를 통해 내비게이션 PMP 노트북PC 소형 LCD TV 등 다양한 용도의 제품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디바이스, 300억원 낙뢰보호시스템 공급

디지털디바이스는 기존 디지털TV사업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일본 덴켄(DENKEN)와 연간 300억원 규모의 낙뢰보호시스템 제품의 공급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월 2일 밝혔다.

낙뢰보호시스템은 건축물에 뇌전류의 침입을 방지해 내부의 기기, 설비를 보호하는 제품이다.

낙뢰보호시스템의 클래스1의 경우 독일의 3개사가 전세계의 70~80%이상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디바이스와 계약을 체결한 덴켄은 이들 3개사 중 으뜸인 OBO BETTERMANN의 일본 독점 총판업체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예측 불허한 낙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건물 및 기기 파손에 대한 심각성의 증대됨에 따라 건조물의 설계, 시공 공사 시에 갖추어야 할 낙뢰보호시스템에 대한 국내의 미흡한 KSC 규격이 IEC규격에 맞추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디지털디바이스가 국내 낙뢰보호제품 시장의 선두주자로 새롭게 진출해 그 의의가 크다.

회사 관계자는 "2007년도에는 사업다각화를 통해 기존 디지털TV 판매를 포함해 낙뢰보호 시스템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신규 수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비티씨정보통신 윈도비스타 프리미엄 인증 획득 제품 출시



비티씨정보통신과 디비코는 양사의 윈도비스타 프리미엄 인증 획득 제품을 결합한 특별 상품 '제우스5000M 프리미엄HD'를 지난 1월 25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비티씨정보통신이 올해 전략상품으로 판매중인 22인치 와이드 LCD모니터 '제우스5000M'과 디비코의 외장형 HDTV 수신기 '퓨전 HDTV5 USB GOLD'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상품으로 22인치 와이드 LCD모니터에 HDTV 수신기능을 합쳤다.

비티씨정보통신은 프리미엄 브랜드 '제우스' 시리즈로 지난해 LCD모니터 시장에 인기를 끌었다. 삼성전자, LG전자에 이어 국내 중견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윈도비스타 프리미엄 인증을 획득,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LG엔시스, 올해 매출 목표 4500억

LG엔시스가 지난해보다 15% 이상 매출을 늘려잡는 등 공격적인 영업에 시동을 걸었다

LGCNS 출신의 정태수 신임 사장 체제에 본격 가동한 LG엔시스는 사업부문별 책임제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올해 450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2월 20일 밝혔다.

이 같은 매출 목표는 지난해 3900억원보다 15% 이상 증가한 것이다.

LG엔시스는 기존 3개 부문(시스템&솔루션, 금융시스템, 고객 지원)의 조직 편제를 시스템·금융·전략·서비스·솔루션 등 5개 부문으로 확대했다.

서비스와 솔루션, 전략사업을 향후 LG엔시스의 확실한 성장엔진으로 보고 이를 독립 부서화한 것이다.

LG엔시스는 시장전략·상품기획·마케팅·판매 기능까지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기능을 각 사업부문별로 두는 책임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중에서 서비스 사업 부문은 기존의 고객 지원 부문을 재편한 것으로 IT통합 서비스인 '소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매출을 늘려나가게 된다.

전략사업부문은 △USN/RFD △네트워크 보안 △수출 등 미래 수증 사업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솔루션 사업 부문은 미들웨어 및 VTL 가상화, 비즈니스인텔리전스(BI) 등을 맡는다.

정태수 신임 사장은 "LG엔시스가 IT솔루션 및 서비스 분야 1등 기업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사업 전략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사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디보스, 자체 UL인증 체제 구축

LCD TV 전문업체 디보스는 최근 자체 UL 규격 인증 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 특수시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갖추게 됐다고 3월 7일 밝혔다.

UL은 재료, 기구, 기기, 구조, 방법, 시스템이 인명과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디보스는 그동안 개발 제품에 대해 외부에서 UL인증을 받아 왔다.

그러나 6주나 걸리는 인증 기간으로 인해 바이어들의 제품 개발 요청에 신속한 대응이 힘들었던 것은 물론, 인증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번에 디보스는 자체 UL인증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증 기간을 3주 단축하고, 인증 비용 역시 약 20% 절감 할 수 있게 됐다.

로케트전기, 페이퍼전지 관련 특허취득

건전지 전문 제조업체인 로케트전기는 페이퍼전지의 에너지밀도를 극대화시키는 초박형전지의 전극 및 그 제조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2월 13일 밝혔다.

이 특허로 수용성 바인더와 유기용매 용해성 바인더를 혼합해 전극으로 적용함으로써, 초박형 망간전지의 중부하 방전특성 및 전극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 특허 취득으로 저용량, 저출력 특성을 보강해 리튬전지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고출력, 고용량 응용분야로 페이퍼전지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특허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에 동시 출원돼 국내에서 제일먼저 취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